MILAL & WORLD 7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표지사진

지난 5월18~29일에 코소보로 단기선교를 떠난
남가주밀알 가족들이 BPZ교회를 배경으로
현지 사역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2 | 칼럼
장애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04 | 행사 리포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2회 사랑의마당축제

06 | 두 번째 밀알 사랑이야기
모두가 하나되어 만든 감동의 선율

08 | 나를 변화시킨 밀알
From Being Restored to Becoming a Vessel of Restoration

10 | 2026년 기획 연재: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7)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기억하시는가?

12 | 코소보밀알 단기선교
코소보 땅에 심긴 한 알의 밀알, 소망의 열매를 꿈꾸며

16 | 기나긴 삶과 신앙의 여정
잃어버렸던 소망의 빛을 밀알에서 보았습니다 (하)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벤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305호 | 2026년 7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장영준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벤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습니다

우리는 흔히 장애인들을 떠올릴 때 육체적으로 불편한 부분만을 바라보곤 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휠체어를 타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할까, 지적장애를 안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물론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마땅히 우리가 그들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에만 머문다면, 밀알선교단의 존재 목적은 반쪽짜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웃의 짐을 덜어주는 일은 다른 종교에서도 강조하며,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 깊이 공감하고 실천하는 보편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밀알선교단의 가장 크고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돈, 권력, 인기와 같은 세상의 조건이 죄 사함의 기준이 될 수 없듯, 가난이나 장애 역시 죄 사함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비록 어떤 지적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처럼 자신의 믿음을 논리적인 언어로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몸을 다한 찬양과 진실한 예배를 통해 자신만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내뱉는 정연한 논리가 아닐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중심에 담긴 순전한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다고 확신합니다.

병원의 응급실은 예약이나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가장 위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치유가 가장 시급한 영적인 응급환자는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장애로 인해 누구보다 깊은 고난을 지나고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다가가야 할 대상은 이 땅에서 남 모를 고통을 겪는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때, 천국의 소망을 품는 것은 물론 이 땅의 참혹한 고난마저도 능히 이겨낼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이 품어야 할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사탄의 존재가 실재하듯, 그가 지배하는 지옥 역시 분명히 실재합니다. 그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와 기쁨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찾아와도, 뜻밖의 질병으로 장애를 얻게 되어도,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거나 사람에게 배신당해 깊은 상처를 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처럼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모두 잃고 병들어 누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이 땅의 모든 시련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영원토록 당해야 했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의 근본적인 감사는 건강, 자녀의 성공, 사업의 번창과 같은 조건부의 '상대적 감사'가 아닙니다. 사탄의 영원한 지옥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 천국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한 '절대적 감사'입니다. 장애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죄 사함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비로소 지옥의 형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장애라는 무거운 고난마저 능히 뛰어넘는 이 '절대적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글 | **강원호 목사** (뉴저지밀알 단장)

| 행사 리포트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2회 사랑의마당축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42회 사랑의마당축제'가 5월16일(토),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 지역에 위치한 'Emery Elementary School'에서 열렸습니다.

사랑의마당축체와 사랑의축제는 각각 매년 5월과 12월,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연합하여 치르는 행사로 발달장애인들과 일반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랑과 화합의 축제입니다.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가 풍성하고, 장애사역 교회나 단체의 홍보.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지며, 경품추첨, 댄스파티 등 신나는 놀이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42회 사랑의마당축제는 YNC나성영락교회와 해피빌리지(KAVC 미주한인봉사단),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공동주관하고, Joyce Ahn 부에나팍 시의원과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KACCOC),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서 특별후원 해주었습니다. 아울러 GBC 미주복음방송, Caravan Canopy, Hanmi Bank, James Worldwide, Seeds of Worship(SOW), 남가주사진작가협회 등 여러 기관의 따뜻한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장애 부서가 있는 25개 교회와 15개 장애인 단체, 10여 곳의 지역 커뮤니티 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행사를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꾸몄습니다. 당일 날씨 또한 초여름의 활기와 신선함이 느껴지는 쾌적한 기온이어서 정식 등록인원만 1050 명이 되는 수많은 장애인들과 가족들, 스탭과 봉사자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1부 순서는 보이스카우트 단체인 '278 & 1278 Troops'의Opening Flag Ceremony로 시작되었습니다. 남가주밀알 이종희 단장의 따뜻한 환영사가 있었고, YNC나성영락교회 이준혁 부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YNC HOPE Worship Team의 경쾌한 찬양과 한기호 장로의 대표 기도,

YNC HOPE PTA의 특송이 이어졌으며, YNC나성영락교회 담임인 박은성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남가주사진작가협회의 전문적인 협조 아래 모든 참가자가 함께 모여 단체 기념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예배 후 Happy Village 김장호 국장의 식사 기도와 함께 각 부스에 마련된 푸짐하고 맛있는 점심식사가 제공되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어 올해도 HABIT BURGER GRILL 푸드트럭 2대가 행사장에 직접 출동하여 갓 구워낸 맛 좋은 햄버거를 특별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는 SOW(Seeds of Worship) 팀의 열정적인 찬양 연주와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진 신나는 댄스파티로 축제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또한 토랜스 사랑의교실의 역동적인 난타 공연이 무대를 장식했으며, 남가주밀알 양희원 집사의 재치 있는 사회로 진행된 레크리에이션과 푸짐한 상품이 걸린 행운권 추첨을 통해 참석한 발달장애인들과 가족, 봉사자 모두가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축제는 감사와 소망을 담은 폐회 기도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올해도 수많은 교회와 단체의 아낌없는 노고와 정성 어린 협력 덕분에 사랑의마당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정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이웃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널리 전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 | **남가주밀알선교단 홍보부**

내 친구를 꼭 안아줄래요

밀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O Sole Mio"
Duet: 박상영/권수현

음악으로 전하는 밀알
MUS
CONC
JUNE 7,
First I

음악으로 전하는 밀알의 사랑 이야기
MUSIC
CONCERT

YOU

모두가 하나되어 만든 감동의 선율

시애틀밀알선교단 사역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타코마밀알아카데미(Tacoma Milal Academy)에서는 지난 6월 7일 오후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서 밀알 후원 음악회인 '두 번째 밀알 사랑 이야기'를 개최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과 나눔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했다. 이번 음악회는 시애틀밀알이 매년 여름 진행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캠프'를 후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역 한인사회와 장애인 가족, 교계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공연은 조나은(플루트), 조성윤(첼로), 조윤행 목사의 피아노 트리오가 연주한 '시편 23편'으로 막을 열었다. 이어 권상길 목사가 쇼팽의 '녹턴(Op.9 No.2)'을 연주하며 아름다운 선율로 관객들을 음악회의 분위기 속으로 이끌었다. 밀알 홍보영상 상영 후 시애틀밀알 단장 장영준 목사의 개회기도가 이어졌으며, 김초미 자매의 사회로 본격적인 음악회가 시작됐다. 이날 무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권희지는 더블베이스 독주곡 '사랑의 인사'를 통해 따뜻하고 풍성한 울림을 전했고, 박상영은 '내 삶의 주인'을 찬양하며 은혜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또한 김영수 목사 부부는 듀엣곡 '사랑의 예수님'을 통해 아름다운 화음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장영준 목사는 시애틀밀알과 사랑의캠프 사역을 소개하며 "장애인 친구들이 사랑 안에서 마음껏 웃고 즐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밀알 친구들이 헌금송 '감사'를 부르며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순수한 마음으로 전한 찬양은 행사장 곳곳에 잔잔한 여운을 남겼다.

후반부 공연 역시 다채롭게 이어졌다. 피아니스트 안선은 애니메이션 영화 K-Pop Demon Hunters의 삽입곡 'Golden'을 피아노 연주로 선보이며 클래식 음악회에 신선한 활력을 더했다. 이어 진원경(바이올린), 조성윤(첼로)의 앙상블은 드보르자크의 'Humoresque'를 아름답게 연주해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권수현은 '봄의 소리 왈츠'와 '요게벳의 노래'를 통해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였으며, 박상영과 함께한 듀엣곡 'O Sole Mio'는 공연장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특별출연한 워싱턴 코랄 합창단(지휘 김유승, 반주 남현선)은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창하며 풍성한 화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합창단의 무대는 참석자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를 전하며 음악회의 절정을 이루었다. 음악회의 마지막은 모든 출연진과 참석자들이 함께 부른 '꼭 안아 줄래요'와 '축복송'으로 장식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세대와 교단을 넘어 모두가 하나 되어 서로를 축복하는 모습은 음악회의 의미를 더욱 빛나게 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연출한 권상길 목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며 "사랑의캠프를 통해 장애인 친구들이 소중한 추억과 공동체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의 딸이 사랑의캠프를 일 년 내내 기다릴 정도로 큰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참석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행사는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담임 송경원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한편, 시애틀밀알선교단은 2002년 설립된 비영리 장애인 선교단체로, 워싱턴주 시애틀과 페더럴웨이, 타코마 지역에서 장애인 전도와 봉사, 계몽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시애틀밀알 사역 프로그램 중 하나인 타코마밀알아카데미는 2022년 설립돼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음악·미술·체육·현장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단순한 후원 행사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사랑과 희망,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나누는 감동의 무대로 기억됐다.

글 | **시애틀코리안데일리**(www.seattlekdaily.com)
2026년 6월 8일 기사에서 발췌

From Being Restored to Becoming a Vessel of Restoration

When I look back on my journey, I don't just see a story of returning to faith. I see a story of learning how to actually live it. And for me, that part of the story began at Milal Missiom.

For a long time, I believed in God, but I didn't know how to walk with Him. Even after I came back to Christ, there was still a gap between knowing and doing. I didn't fully understand what it meant to follow Jesus in everyday life. I knew I was saved, but I didn't know how to practice that faith in a real and consistent way.

Milal became the place where that started to change. At the Class AGAPE, I quickly realized that faith is not just something you think about. It's something you practice. Serving participants with special needs challenged me in ways I didn't expect. There were moments when communication was difficult, when things didn't go as planned, or when I felt unsure of what to do. But those moments became the very places where God was teaching me. When I had to repeat instructions again and again, I learned patience. When I saw participants express joy in the simplest ways, I learned gratitude. When I felt stretched or tired, I learned to rely on God instead of myself. These weren't just lessons. They were experiences that slowly shaped my heart. I began to understand that following Jesus is not about having everything figured out. It's about choosing to respond with love, even when it's not easy.

Before coming to Milal, I often thought of service as something I give. But at Milal, I realized that while I was serving, God was changing me. There is something powerful about being in a place where every person is valued, where dignity is not based on ability, and where love is shown consistently. Being part of that environment began to reshape how I see people and how I see life. I started to let go of my old ways of thinking. Things that once felt important didn't carry the same weight anymore. Instead, I began to care more about being present, being patient, and being faithful in small moments. Through serving others, I experienced God restoring parts of my heart that I didn't even realize needed healing.

Another thing that deeply impacted me at Milal is the community. I wasn't walking this journey alone. Week after week, I served alongside other Milalers who showed what it looks like to live out their faith. I saw Milalers who chose joy even when things were challenging. That kind of environment helped me grow. In worship, in preparation, and in serving together, I began to experience consistency in my faith. It wasn't just about one moment or one event. It was about showing up, again and again, and choosing to walk this path together. That consistency helped strengthen my relationship with God.

One of the biggest changes in my life has been this shift: from just receiving God's grace to learning how to give it. The forgiveness and love that I received from God became something I started to carry into my service. When a participant struggles, I try to respond with patience. When someone is left out, I try to include them. When things feel difficult, I try to stay and not give up. I'm still learning. I'm still growing. But I can see that God is using these moments to shape me.

I know my journey is not finished. But I can say this with confidence: Milal has been a place where my faith became real. Not just something I believe, but something I live. Not just something personal, but something I share. Not just something I received, but something I now give. Through Milal, I am learning what it means to walk with Jesus daily. And in that process, I am seeing how God can take what was once broken and use it to bring life to others.

[한국어 요약]
저의 신앙 여정은 단순히 믿음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이를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배움의 시작점은 바로 밀알선교단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었으나 일상의 실천이 부족했던 저에게, 사랑의교실은 믿음이 관념이 아닌 생생한 행동임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을 섬기며 마주한 소통의 어려움과 한계는 저를 인내하게 했고, 제 자신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섬김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라 여겼으나, 밀알은 오히려 저의 얕은 가치관을 깨뜨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며, 저의 신앙은 일상의 변함없는 순종으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는 자'에 머물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친구들의 연약함 앞에 먼저 인내하고, 소외된 이들의 곁에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머무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고 있습니다. 밀알을 통해 저의 신앙은 머리로만 믿는 복음을 넘어, 손과 발로 온전히 살아내는 진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때 부서졌던 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어, 이제는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글 | **David Cho** (밴쿠버밀알러 2025-09)

주: '밀알러'는 밴쿠버밀알의 자원봉사자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믿음을 기억하시는가?
- 장애와 믿음 사이에서 다시 묻게 되는 질문

밀알은 교회에 뿌리를 둔 신앙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믿음을 신앙의 중심에 두어 왔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밀알 공동체에서도 언제나 소중한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오히려 쉽게 놓치게 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믿음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믿음을 이해와 연결하여 생각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알고, 왜 믿는지 설명할 수 있으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믿음이 있다고 여깁니다. 교회 교육 역시 이러한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익히고, 신앙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은 분명 중요합니다. 신앙은 결코 무지나 무관심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조금 다른 질문이 나타납니다. 만일 믿음을 설명하는 능력이 믿음 자체와 동일하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해하고 기억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다면, 우리는 믿음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 앞에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도 금세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암송할 수는 있어도 그 의미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 온 신앙의 평가 기준으로 보면, 그들의 믿음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장애인신학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사람의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인간이 하나님께 다가가는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깊을수록, 설명이 분명할수록, 표현이 풍부할수록 믿음도 크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설명할 때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준비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수없이 오해했고,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움 속에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발견한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억하신 이야기를 더 오래 들려줍니다. 그 사실은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바꾸어 놓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 뻗어 가는 인간의 손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 안에서 시

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믿음은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사랑 안에서 가능해진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장애인의 믿음 역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신앙을 찾지만, 하나님께서는 설명 이전에 존재하는 관계를 붙들고 계십니다. 인간의 언어와 기억은 제한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랑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인간의 이해와 무관한 것으로 만들자는 뜻은 아닙니다. 신앙은 여전히 배우고 성장해야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가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과정의 출발점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쩌면 장애인의 삶은 우리가 너무 쉽게 능력 중심으로 이해해 온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로 먼저 다가오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관계로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고, 기억할 수 있는 것을 신앙의 증거로 여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넓은 자리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언어보다 그 존재를 먼저 아시고, 그 사람의 이해보다 관계를 먼저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특별한 시선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생각함에 있어서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알고 계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요? 복음은 늘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먼저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기억보다 먼저 존재했던 하나님의 기억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 코소보밀알 단기선교

코소보 땅에 심긴 한 알의 밀알, 소망의 열매를 꿈꾸며

이번 코소보밀알 단기선교는, 2년 동안 LA에서 안식년 및 연구년으로 공부하시다 다시 코소보로 돌아가신 김OO 선교사님과의 인연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밀알 봉사를 하면서 만나는 여러 귀한 인연들이 있지만, 사랑의마당축제, 사랑의캠프, 밀알의밤 등 밀알의 여러 행사를 섬기며 선교사님의 세 자녀와 사모님 등 온 가족이 열심히 참여하셨던 모습이 무척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칸반도에 속한 나라들은 비교적 익숙하고 다녀온 곳도 있었지만, 코소보라는 지명은 저에게 다소 생소한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님이 떠나실 때 "언제 코소보 한번 오세요"라고 건네신 인사말을 처음에는 귀담아듣지 못했는데, 단장님께서 밀알 가족들과 함께 단기선교를 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자 저와 제시카도 "무조건 갑니다"라며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코소보밀알 단기선교는 5월 18일에 떠나 29일에 돌아오는 11박 12일의 짧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종희 단장님을 비롯하여 이재형 목사님, 백현 집사님 부부, 우예하라 인주 사모님, 최에스더 집사님, 이용진 집사님, 유인식 & 김동훈

형제, 그리고 제시카와 저까지 이렇게 11명이 18일 저녁 LAX 공항을 떠나 취리히를 경유해 코소보 프리슈티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마중 나오신 김OO 선교사님과 사모님의 차에 나누어 타고 야경이 휘황한 도시를 지나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경제가 열악하다는 소문과는 달리, 도시는 밤인데도 무척 활기차 보였습니다.

1999년 코소보 전쟁이 끝난 뒤 UN과 EU 등 여러 국제 기구가 재건 사업을 지원했고, 수많은 주택과 공공시설이 새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종교 구성은 다수의 세르비아 정교회와 이슬람 수니파, 소수의 동방 정교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기독교 인구는 매우 미미한 편입니다. 첫날 밤을 자는데 이슬람교에서 신도들에게 하루 다섯 번의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인 '아잔'에 깨어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소리가 조금 두렵기도 하여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일어나,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후 시내 유적지를 탐방했습니다. 이종희 단장님은 밀알 대표로 현지 초등학교의 특수학급 지원 약정식에 참여하고 오셨습니다.

다음 날에는 마케도니아 스코페로 이동하여 '알렉산더 대왕'과 '마더 테레사' 동상이 있는 도시를 둘러본 후, 그리스 테살로니키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도로변에는 빨간 양귀비꽃들이 여기저기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바울의 숙소이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장소였던 '야손의 집'으로 추정되는 '블라타돈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인 장소에 발을 디뎠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으며, 바울이 전하려 했던 복음과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성장한 교회의 믿음과 인내에 깊이 감탄하며 전율했습니다. 여러 유적들로 가득한 도시 이곳저곳을 둘러본 후 다시 코소보로 돌아왔습니다.

여정의 6일째가 되는 토요일에는 밀알 가족 심방 및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족 심방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저와 제시카, 이종희 단장님은 마지막 그룹

에 속해 심방을 갔는데, 우리가 방문한 가정은 사연이 무척 특별하고 안타까워 현지 방송에까지 보도된 곳이었습니다. 딸 다섯에 아들 한 명을 둔 가정으로 그 중 두 명의 딸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는 3층 아파트의 꼭대기 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감옥처럼 쇠창살로 베란다를 막아놓았고, 거실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컴컴했으며, 구멍이 뻥뻥 뚫린 방문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무척 지쳐 보였지만 아름다운 미소를 잃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막내딸에게 우리는 준비해 간 선물과 장학증서, 그리고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돌아 나오며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는데, 저와 똑같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둔 엄마로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 느껴져 가슴이 깊이 울컥했습니다. 김OO 선교사님께서는 오랫동안 섬겨온 가정이니 꼭 기도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오후에는 교회에서 현지인 밀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저의 짧은 간증과 함께 제시카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인식, 동훈 형제가 찬양을 드렸고, 이종희 단장님의 밀알 사역 영상 상영과 격려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현지 장애인 어머니들과 함께 신나게 게임을 즐겼습니다. 비록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현지 목사님 사모님께서 통역을 맡아주셨습니다), 눈빛과 제스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웃음 가득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무슬림이었는데, 김OO 선교사님께서는 이 어머니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복음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것이 오랜 사역의 목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일에는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따뜻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코소보 티셔츠를 맞춰 입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열정적인 찬양이 끝난 후, 'BPZ 교회'의 담임이신 '아투' 목사님께서 우리 남가주밀알 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어 단장님의 밀알 사역 소개와 인주 사모님을 비롯한 수어 찬양

팀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남가주밀알 팀이 온 맘 다해 연주하는 수어찬양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현존에 깊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현지인들과 우리 모두는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감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투 목사님께서 대접해주신 풍성한 현지식 점심을 나누고 우리는 코소보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소망을 잃지 않는 현지 장애인 가족들의 삶과 코소보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이후 알바니아를 거쳐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까지 남은 일정들을 바쁘게 소화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긴 여정 속에서 특별히 아프거나 다친 일행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곳저곳 많은 곳을 방문하고 걸어 다녔지만,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식, 동훈 형제와 제시카는 잘 먹고 잘 자며, 컨디션이 어떠냐고 물어볼 때마다 "좋아요!"라고 환하게 외쳐주었습니다. 발칸반도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이번 선교 여행은 지나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세밀한 보살핌이 계셨기에 기대 이상으로 가슴 벅찬 여정이었습니다. 비엔나를 거쳐 12일 만에 무사히 돌아온 LA, 그리운 집으로 돌아온 것 또한 큰 기쁨입니다. 비록 시차 적응으로 며칠간은 조금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경이롭게 역사하신 이번 선교 여행이 앞으로도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 씨앗이 되어 코소보 땅에 더욱 풍성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글 | **국 숙**
(남가주밀알 단원, 제시카 송 자매 어머니)

잃어버렸던 소망의 빛을 밀알에서 보았습니다 (하)

주: 지난 6월호에 이어 황예지 자매의 간증문을 개제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던 어느 날, 밀알 친구 Peter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수소문해 암 전문의 명함을 찾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네 아픔을 알아. 네 슬픔도 알아.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는 전화로 저에게 기도해 주었고, 찬송가 ‘부름 받아 나선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고, 그는 아무 말없이 끝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이 외에도 밀알 친구들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다가와줬습니다. 저에게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 주었고, 기억해주었고, 기도해주었습니다. 제가 지쳐 보이면 먼저 괜찮은지 물어봐 주었고, 병원 진료 후에는 늘 안부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잘 챙겨먹지 못하는 날에는 저를 집으로 초대해 따뜻한 한끼를 함께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갈 수 없을 만큼 아플 때는 설교와 찬양을 보내주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밀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살기 위해 몸부림치던 저를 그곳으로 이끄셨고, 이미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그들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장애는 결핍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성령과 사랑을 체험하며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고, 제 고난조차도 누군가의 생명을 향해 흘러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 깊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우울 속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날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주 작은 숨 한 번, 희미한 기도 하나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돌이켜보면 불행이라고 여겼던 제 인생은 결국 불행이 아니라 삶 속에 더해진 깊은 불편함이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희망을 보기 시작했고, 절망 속에서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이라 여겼던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모든 비극의 원인을 사람들과 상황에 돌리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제 삶을 통제하며 스스로를 옭아매며 살아왔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거부했던 순간들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이 아닌 제 기준으로만 삶을 해석해왔던 시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회개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충격 사건, 친구들의 죽음, 어머니의 사고, 배신과 상실, 그리고 암까지도 모두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들은 결국 제가 인생을 통제하려 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마치 천천히 떠오르는 새벽빛처럼 제 삶을 밝혀주었습니다. 애초에 제 삶은 제 손 안에 있었던 적이 없었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제가 그분을 알지 못하던 순간에도, 처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저를 만나셨습니다. 제 암을 단번에 없애 주시거나 고난을 해결해주는 기적을 만들어 내시지 않고, 가장 적절한 때에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셨듯이, 제가 만난 사람들도 제 곁에 남아 함께 아픔의 무게를 짊어주었습니다. 저 역시 숨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발자취를 따라 걷고 싶습니다.

올해 6월, 저는 밀알 장애인 친구 11명과 봉사자 27명과 함께 뉴욕 센트럴파크에서 4마일 마라톤에 참가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제 연약함 속에서도 사랑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과 다리, 목소리가 되어줄 때마다, 오히려 제가 치유받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의 저는 죽지 못해 살아갔지만, 이제 저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제 상황은 달라진 것 하나 없고 아직도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은 이 삶도 괜찮습니다. 제 삶이 더 이상 제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의 소망은 연약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빚어지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연약함 가운데 심긴 삶도 결국 부활 안에서 영광으로 다시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고 믿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이 제 삶을 떠나지 않는다 해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딜 힘을 주실 것이고, 제 영혼은 안전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제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다는 뜻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맡겨진 하루를 살아갑니다.

글 | **황예지**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지단별 소식

남가주

2026 사랑의캠프 성료

2026 사랑의캠프가 'Milal World Cup'이란 주제로 지난 6월25일~27일까지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사랑의캠프에도 수많은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예배와 성찬식, 세족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약식 월드컵 축구경기 등 각종 재밌는 게임,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캠프를 위해 수고한 밀알의 모든 스탭, 봉사자들과 기도로, 물질적 후원으로 사랑의캠프를 성원해주신 밀알 가족과 함께 동역하는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밀알&세계> 8월호에 기재됩니다.

LA 화요예배 (6월)

•2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밀알의 땅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김미향 전도사님이, 특송은 코소보 단기선교팀이 수어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민영옥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6월과 7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9일: Wayne Uyehara 목사님께서 "시간의 간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민영옥 권사님이, 특송은 전성도 전도사님과 배덕선, 신성혁 형제님, 김방림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이정호 집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16일: 써니사이드교회에서 예배를 섬겨주셨습니다. 담임목사인 조성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와 특송, 저녁 친교도 써니사이드교회 성도님들이 섬겨주셨습니다.

OC 목요예배 (6월)

•4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밀알의 땅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황우진 형제님이, 특송은 코소보 단기선교팀이 수어찬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밀사모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6월과 7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1일: 이준수 목사님께서 AI 영상 기술을 이용해 "유리장벽 안에서 비추는 밝은 빛"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송진영 형제님이, 특송은 OC한인교회 임마누엘선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 역시 OC한인교회 임마누엘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18일: 로뎀장로교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영주 사모님이, 특송은 캐롤라인 김 자매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 역시 로뎀장로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교실 (6월)

•6일: Integrated 브랜치(통합반)에서는 카페 아우팅을 다녀왔습니다. 직접 원두를 로스팅해 보고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맛있는 샌드위치와 간식을 나누고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며 웃음이 가득한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13일: 사랑의교실은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각 브랜치별로 종강파티를 진행했습니다. 부모님들을 초청하여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고, 지난 학기 동안의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일: 사랑의캠프를 앞두고 봉사자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찬양과 예배, 안전교육, 세족식 등을 통해 섬김의 마음을 되새기고, 캠프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맛있는 타코 점심을 나누며 격려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27일: 사랑의캠프가 CSULB 캠퍼스에서 'Milal World Cup'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은 은혜로운 예배와 찬양,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쁨과 감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닷가 프로그램과 시상식,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일정 속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 마치 천국의 축제에 참여한 것 같은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제목

•밀알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LA화요모임, OC목요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토요 사랑의교실 7개 브랜치가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밀알 가족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스탭들과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가운데 2026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2026년도 밀알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북가주

사랑의 캠프와 아가페워십 리더십 이양

6월은 사랑의 캠프와 아가페워십 사역의 새로운 전환점을 함께 경험한 감사의 달이었습니다.

6월 20일에는 사랑의 캠프 봉사자 워크샵이 진행되었습니다. 총 34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장애인 참가자들을 섬기기 위한 마음을 나누고, 안전교육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훈련을 함께 받으며 은혜롭게 캠프를 준비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모인 봉사자들의 헌신과 열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동안 CSU Long Beach 캠퍼스에서 사랑의 캠프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캠프에는 약 450여 명의 장애인과 가족, 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 안에서 교제와 배움, 도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가주밀알에서는 장애인과 봉사자를 포함하여 총 55명이 참가하였으며, 예배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함께 누린 이번 사랑의 캠프는 참가자들에게 소중한 추억과 믿음의 자산을 남겼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뉴비전교회 장애인예배 아가페워십의 리더십 이양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장애인과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리더십 아래 아가페워십이 다음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6월 화요예배 소식

2일: 임마누엘장로교회 장애우섬김팀에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새누리교회 힐링하모니 앙상블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었으며, 특별히 뉴라이프교회 멜로디크 앙상블이 처음 방문하여 귀한 특송을 통해 은혜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김정기 단장님께서는 로마서 강해 제3강 말씀을 전해 주시며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일: 산호세 한인장로교회를 방문하여 풍성한 식사와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님들의 찬양과 섬김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김정기 단장님께서 로마서 강해 제4강 말씀을 전해 주시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3일: 산호세 동산교회를 방문하여 성도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며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임택규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어 주셨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30일: Mercy & Peace 팀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와 섬김 가운데 따뜻한 저녁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식사와 교제를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었으며, 김정기 단장님께서 로마서 강해 제5강 말씀을 전해 주시며 복음 안에서 누리는 소망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 교실

•청년밀알 아트클래스를 통해 만든 작품들을 모아 상반기 중 아트쇼를 개최하려고 준비하였으나, 보다 풍성한 전시를 위해 가을에 아트쇼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준비된 작품들을 바탕으로 가을 아트쇼를 계획하게 되었으며, 더욱 풍성한 전시를 위해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점토와 콩을 활용하여 별, 하트, 삼각형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재료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고 모양을 만들어 가며 손가락 운동을 할 수 있었고, 완성될 때까지 집중하며 기다리는 인내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개성을 담아 다양한 작품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Cornhole 게임을 함께 하였습니다. 작은 콘 주머니를 던져 구멍에 넣는 단순한 게임이지만 방향을 맞추고 힘을 조절하며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서로 응원하며 즐겁게 참여하였고, 몸을 움직이며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영적인 건강을 세우고, 운동과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육체의 건강도 함께 가꾸어 가는 청년 밀알이 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팀별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필사하고 사랑의 의미에 대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씀을 읽고 쓰며 사랑이 무엇인지 생

각해 보았고, 각 팀이 사랑에 대한 생각을 발표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사랑의 모습을 배우며, 청년 밀알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함께 배우고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청년밀알 가족으로 함께해 온 은주네 가정이 시애틀로 이주하게 되어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거리는 멀어지지만 우리는 여전히 밀알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함께 축복하였습니다.
•청년밀알은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여름방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9월에 다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기도제목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광연 장로님(간이식 수술 준비), 장연화 자매님(재가장애인), 도한철 선교사님(루게릭), 로사 자매 아버님(건강회복), 이은희 작가님(신장투석), 예진 어머니(회복), David Im 어머니(고관절 수술 회복), 써니 집사님(건강회복))
•이우성 간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고(故) 이용현 권사님의 소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슬픔을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은혜 가운데 마무리된 2026 사랑의 캠프를 위해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캠프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장애인과 가족들, 봉사자들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화요예배를 통해 만나는 지역교회의 성도님들과 깊은 교제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토요 사랑의 교실에 청년과 장년 봉사자들을 보내 주시고, 1:1 봉사자들이 풍성히 채워져 장애인 친구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교실과 청년밀알 아트클래스를 통해 장애인 친구들의 재능과 가능성이 아름답게 꽃피게 하시고, 하반기에 준비되는 아트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북가주밀알의 하반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화요예배와 사랑의 교실, 사랑방 모임, 밀알의 밤, 장애인 예배 사역 등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 가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밀알의 스텝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지혜를 주시고,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역교회의 장애인 사역이 더욱 활성화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뉴비전교회 장애인예배 아가페워십의 리더십 이양이 은혜 가운데 마무리됨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리더십 아래 아가페워십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장애인과 가족들, 교사와 봉사자들이 한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시애틀

시애틀 사랑의교실
샬롬! 시애틀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사랑의 교실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장영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 장아련 사모님의 크래프트와 지정은 선생님의 음악수업이 있었습니다. 이날 점심은 시애틀형제교회에서 준비해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체육관에 가서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했습니다. 직접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고 게임도 함께 했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교실 되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더 많은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봉사자가 채워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2:30까지 에드몬즈의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준 목사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시애틀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북클럽,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진희 집사님의 초대로 시애틀의 Hangry Joe's Hot Chicken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모두 자신의 원하는 메뉴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대접해 주신 이진희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점심 후에는 그린 레이크에 가서 시원한 그늘에 돗자리를 깔고 휴식과 게임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SMA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들(남자 봉사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타코마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장영준 목사님이 설교를 해 주셨고, 박현실 사모님이 음악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서 정성으로 섬겨 주신 풍성한 점심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 잔디밭에서 미니 골프를 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게임을 옥희 집사님과 마이클 형제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남은 시간도 TMA가 늘 건강하고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남자 봉사자들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많은 봉사자들로 인해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밀알의 사랑이야기(음악회)
지난 6월 7일 주일 오후 5시에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에서 '밀알의 사랑이야기(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타코마의 음악가들이 재능 기부로 참여해 주셨고, 우리 친구들도 특송을 했습니다. 이 음악회를 위해 권상길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매월 1회 SMA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 주언약교회, 낮은 울타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매월 1회 사랑의교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형제교회, 시애틀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장영준 목사는 밀알 캠프 준비와 음악회 준비와 진행을 했습니다.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주일 오후12시에 있습니다.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탈춤, 독서클럽,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요가, 산책,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밀알에서 필요한 것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지원)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넵킨, 물 등
•주S.M.A(화) 와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20명)

기도제목
•2026년에도 밀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미주밀알 총단장직을 맡은 장영준 목사의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 주세요.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SMA에 새로 오신 선생님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을 위하여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밴쿠버

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

밀알에서 친구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발룬티어 밀알러들이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사랑의교실은 예배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환영송과 함께 시작하는 예배는 찬양으로 주님을 송축합니다. 단장 이상현 목사님은 5월 16일에는 디모데후서 4:7을 본문으로 'A Race of Faith', 5월 30일에는 디모데후서 4:8 말씀을 본문으로 'The Lord will Award to Us', 6월 6일에는 사도행전 20:24을 본문으로 'Run for the Prize'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배워가며, 구원의 신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밀알러는 버디에게 설교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다시 가르쳐주고, 말씀을 심화하는 활동시간을 가진 후에, 성경암송과 함께 점심식사를 합니다. 오후시간은 음악을 감상하는 랜선 음악여행과 체조로 시작하고, 소그룹활동을 통해서는 개별화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돌아간 후에는 베뉴 정리정돈과 리뷰 후에, 밀알러가 함께 친구들과 밀알선교사역을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사역과 봉사를 위한 미팅과 준비를 합니다.

사랑의교실 점심을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16일 만나교회(담임목사 손진웅), 5월 30일 써리한인교회(담임목사 권태욱), 6월 6일 주은혜교회(담임목사 송관빈).

2025~2026 학년도 종강 세레머니

6월 6일, 2025~26 학년도 종강 세레머니를 통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봉사자 밀알러들과 데이 미션 밀알러들과 매주 점심을 준비해 주신 교회들의 손길들(호스피탤러티 밀알러), 그리고 밀알선교사역을 후원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멋진 상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모범적으로 봉사한 밀알러에게는 캐나다 상원의원이 수여하는Certificate을 전달하였습니다.

밀알러(발룬티어) 리쿠르트

밀알러로 함께할 발룬티어를 찾습니다. 축복된 경험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안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밀알은 좋은 지원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봉사자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www.vancouvermilal.com > Get Involved

썸머 사역

8월 29일에 가질 <밀알러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합니다. 6월 13일에는 <함께걸음 콘서트 디프리프 미팅>을 갖고 이벤트를 위한 의견교환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7월에는<리더십 리트릿>으로 새 학년도 사역 및 밀알의밤을 준비하고, 7월 25일에는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합니다.

밀알 1일 단기선교

따로 휴가를 내거나 먼 곳으로 가지 않고, 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문의, 604-339-4417 단장 이상현 목사).

밀알선교사역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 '선교'에 관하여 알기 원하거나, 함께 할 관심이 있는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04-339-4417).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이트랜스퍼를 통해 후원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포스탈코드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giving@vancouvermilal.com)

기도제목

•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 주시고, 장애인들과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 안에 살게 하소서.
•밀알가족들,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시어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맺는 밀알로 세워 주소서.
•장애인선교를 위해 함께 하는 이들과 기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장애인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며, 그 증인으로 살게 하는 밀알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 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소서.
•7월의 리더십 리트릿, 밀알러소셜스, 재즈페스티벌 아웃팅, 8월의 아트 페스티벌과, 하반기 사역준비 활동, 밀알러 리크루트와 오리엔테이션 준비 및 밀알의밤 준비, 굿즈프로젝트,밀알러프로젝트을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단장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합니다.

텍사스

토요 사랑의교실 (5월)

오전 10시부터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Bible study와 Art & Craft 활동을 설교중심으로 분반하여 진행하고, Gym으로 옮겨 가서 발달에 필요한 여러가지 신체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다시 Bible study 와 Art & Craft 반을 바꾸어 진행한 후, 음악치료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 단체 및 개인들께서 재정과 음식으로 섬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scape Bakery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베이커리로 섬겨 주셨고, 2일에는 사랑의교실에서 봉사하는 Youth 봉사자들의 학부모님들께서, 9일에는 조이풀교회에서, 16일에는 새롭게 IN2 Dallas Church에서 오셔서 여러 활동 뿐만 아니라 점심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16일 모임을 하고 사랑의교실은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심봉사를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5세 이상 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서부연합 여름 사랑의캠프 참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LA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여름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밀알&세계 8월호에 개제하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일시: 7월 6일~10일, 10:00 AM~2:15 PM
•장소: 한우리미션센터
•성경학교 등록비: $20
•참가자 대상: 모든 연령의 장애인
•자원봉사자: 1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과 안전을 위한 1:1 매칭 봉사, 봉사시간 부여, 매일 9:30-2:20 참여, 사전 봉사자교육 참여해야 함, 하루 이상 봉사 가능한 모든 이 환영
•자원봉사자 교육 및 VBS 참여 교회 오리엔테이션: 6월20일 1시@한우리미션센터
•문의: 텍사스밀알선교단

텍사스밀알 합창단원 모집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장애인,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선교단으로 문의하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텍사스밀알 오케스트라 6기 단원 모집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지역 선교를 같이 할 15세 이상의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 바이올린, 비올라, 관악 및 퍼커션
•모집 일정: 7월 4일까지 신청 받음
•신청비: $30
•오디션 일정: 7월 11일
•신청문의: 밀알선교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267-467-5971, txmilal@gmail.com)

기도제목

•텍사스밀알선교단을 통해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 봉사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텍사스 다른 지역에 사랑의교실 사역을 확대하길 원합니다. 합당한 만남을 주장하소서
•지금의 봉사자들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의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게 하시어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여러 교회가 밀알 사역을 선교지로 알게 하시고,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어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하소서
•7월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합창단원이 모여져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적합한 6기 오케스트라 단원이 모여 다음 연주회까지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게 하소서
•계획한 사역이 순조로운 방법으로 진행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역이 이뤄지게 하소서

재정보고 2026년 5월

| 남가주

■ **INCOME: $56,434.00**

Individuals: $4,350.00 $30 Missionary Deborah, Youn G Ro / $40 Jack C. Kim / $50 Hye Ran Lee / $60 Hyoung Seo / $100 Sally Kim, Hyun Pack, Ho Myoung & Won Sook Lee, David S Shin, Kyong Ok Lim, Anthony D. & Chun C. Gamble, Mi Sup Lee / $200 Jaemin Youk, Ken Lee, Hyeong K Jin & Hyun S Choi, June Sin / $240 Young Ran Kim / $300 Douglas YongWoo Seo, John & Jae Hyang Lee, David Heung & Jeong Mi Kim / $500 Steven Chul Kim / $1,000 Inju Uyehara

Churches & Businesses: $10,290.00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 Rohthem Presby. Church, Salt Covenant Church, Temple Church of Christ Korean / $15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200 Bankcard Services, Beautiful Hill Presbyterian Church,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Korean Young Saeng Presby Church, LA Mission Church of Hope,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Wisdom Daycare / $240 Bethel Korean Church / $250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 $300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Full Gospel L.A Church, H.D. Grace Church, Irury LLC, Las Vegas Vision Church, Sarang Community Church,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The Church of the Nations,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 $350 The Lord's Community Church / $400 Hyungje Presbyterian Church of SC / $500 General Metal Recycling Co., Irvine New Life Korean Church / $700 Sunnyside Presbyterian Church / $750 Good Stewards Church / $800 Lord's Light Community Church / $900 World Mission Church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41,794.00 $50 Donor Advised Fund / $50 Thursday worship birthday cake / $400 Hyun Woong Kim for Thursday Worship / $700 Designated for Rent / $500 Jong Hee & Young Lee for Class AGAPE / $23,950 Camp AGAPE / $6,994 Camp Fundraising / $9,150 Love Festival

■ **EXPENSE: $54,061.56**

Class AGAPE: $3,732.26 $342.80 Class Outings / $1,310.86 Meals & Snacks / $226.76 Materials & Supplies / $551.84 Events & Meetings / $1,300 Camp Fee Support

Love Festival: $19,522.99

Media Mission: $3,194.37 $1,650 M&W Publication / $1,504.17 Magazine Shipping for May & June / $40.20 PO Box & Return mail

Meeting & Events: $438.19 $288.19 Love Festival Booth Food & Supplies / $150 Love Festival Entrance fees

Charitable Supports: $950.00 $500 Periodic Supports / $300 Palm Misson Church / $150 Condolences to Kim family

Ministry Expense: $1,669.56 $86 Birthday Cake / $500 Tuesday Worship / $1,083.56 OC Jjajangmyeon Day

Fundraising Expense: $7,580.00 Merchandise

Payroll Expenses $9,270.70 $5,803.66 Salaries & Wages / $532.29 Payroll Tax / $840 Employee Benefit / $2,094.75 Housing Support

Admin & Management: $7,703.49 $5,011.23 Rent / $61.03 Woongjin / $332.25 FBM / $139.92 Telephone & Internet / $252.18 Electricity / $751.73 Office Supplies / $942.15 Alliance Fee for America Milal / $213 SBA EIDL Interest
Previous Carry over Balance: $116,788.45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19,160.89

■ **Milal Scholarship Finance Report**
INCOME: $2,600.00 <Churches & Businesses $900: $300 Irvine Onnuri Church / $6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Specials & designated $1,700: $1,000 Lighthouse KPC for Kosovo Milal / $500 Choong Hyun Church(GSF) for Kosovo Mission / $200 Milal Night Brochure Ads>
EXPENSE: $19,276.65 <Class AGAPE $5,868: Teachers' Compensation> <Scholarship $13,408.65: $1,800 Collegians / $3,642.40 Kosovo Milal / $7,066.25 Reserved Ministries Support / $900 Volunteers Aids>
Previous Carry over Balance: $35,962.24 |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9,285.59

| 북가주

■ **INCOME: $26,130.96**

Individuals $5,850 $50 김신자, 김애경, 김영, 이우성/ $100 Klepeis Family, Jonathan&Joung Ok Han, 김만종&정애, 나정화, 박순희, 이석권&정찬미/ $200 최영훈&재현/ $250 에디김가정/ $300 공명진&은정, 김정기&남경아, 레이첼가정, 오영수/ $400 이학천$지선/ $500 정소라가정, 차현상&은미/ $1,000 김택규, 박진호

Churches&Businesses $3,976.74 $100 브루스리미용실,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세화교회, 트레이시주은혜교회/ $176.74 AOGF/ $200 the Light of Christ Church, 주손길교회/ $300 임마누엘장로교회(밀알목장)/ $1000 뉴비전교회(권사회)/ $1900 임마누엘장로교회

Designated $11,000 <사랑의교실 $850: $100 김정기&남경아, 마이클가정/ $150 에디가정/ $200 안수빈가정/ $300 엠마오선교원> <화요예배 $430: $100 김정기&남경아, 이강진&권유진/ $230 전송화> <사랑의캠프 $9,720: $400 김영/ $800 토마스&마이클가정/ $3,420 펀드레이징수익금/ $5100 캠프참가비>

■ **EXPENSE: $15,619.10**

Mission Expenses : $9,265.55 사례비(5인)$7,056.35/ 선교활동비$313.70/ 미주밀알지원$475.51/ 은급비$300/ 화요예배$267.91/사랑의교실$314.78/ 밀알소풍$537.30

Admin. & Management: $2,568.45 유틀리티 $275.58/ IRS Tax $492.87/ 사무실임대료$1,400/ 2025년재정보고회 계비$400

Auto Expenses: $2,464.90 유류비$273.15/세차$21.99/ 보험료$2,169.76

Media Mission: $1,320.20 밀알&세계발송비$338.06/ 밀알&세계인쇄비$982.14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9,001.45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4,209.09

| 시애틀

■ **INCOME: $32,980.00**

Individuals: $3,220.00 $30 남숙희, 정은옥 / $50 이영자, 조성배, 박진경 / $100 송인숙, 경자혼, 오수미, 노현숙, 류준명, 윤태준&이정주(X2) / $150 김복조 / $200 조천석 / $460 장영준&장아련 / $500 Aileen Park / $1,000 이명운

Churches: $4,050.00 $100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자유교회, 벨링햄화평교회, 순복음큰빛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시애틀 물댄동산교회, 목양감리교회, 퓨알럽 한인장로교회, GSM / $150 페더럴웨이 벧엘침례교회 / $200 페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 / $300 낮은울타리교회,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 $400 타코마 중앙장로교회(DDTS),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 $600 페더럴웨이선교교회 / $800 시애틀 행복한교회

Businesses: $400.00 $300 Fair Ridge Law Firm / $100 임학수CPA

Designated Income: $25,310.00 $2,200 SMA & TMA($1,900 회비, $300 이현주) / Fundraising $12,840 / 사랑의캠프 $10,270($4,770 회비, $5,000 이미나&밥, $500 이영자)

■ **EXPENSE: $13,658.67**

Mission Expense $3,828.44 / Admin & Management $1,657.34 / Media Mission $1,331.62 / Class AGAPE $526.27 / 상회비 $547.80 / SMA & TMA $2,178.62 / Outreach & Retreat $300.00 / Business Reply Mail $200.00 / Tax $481.60 / Special event $680.54 / Agape Camp $944.36 / Insurances $338.11 / Pastoral Visit $343.97 / Retirement Plan $300.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64.271.70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83,593.03

| 밴쿠버

■ **INCOME $24,120.00**

Individuals: $5,65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한은순 / $30 원소현, 테레사최, 정미영 / $50 이혜영, 이재림 / $100 이상현&유혜정, Hakyoung Kim / $200 하준석 / $5,000 무명

Churches & Businesses: $3,600.00 $100 헤브론교회 / 주님의 제자교회 $1,000 / 자모회 $2,500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14,870.00 <사랑의교실 $1,620: $50 오정석, 강향숙 / $100 김계은 / $120 곽혜경 / $250 이상화 / $300 김타숙(#543) / $750 구지성(런치지정)> <5월 사랑의교실 예배헌금 $520: $20 김도건, 서동구, 김도건, 서창성 / $40 에드윈 / $50 박수영, 오예찬 / $100 이해, 장민음, 이예담> <함께걸음콘서트 $12,230: 티켓 $1,980 / $200 코이노니아한인교회(#499), Yong Wellness, 유용환, 삼손운송 / $300 김정화치과 / $500 권원식(#93), 1460749 BC Ltd(#521), Reno Bio Health Ltd(#581) / $1,000 코람데오 파운데이션, 그레이스한인교회 / $2,300 밴쿠버중앙장로교회 / $3,000 Arete Centre / 도네이션 $350> <designated 500: 코람데오(#4823)>

■ **EXPENSE: $10,150.40**

Payrolls: $3,654.79 사례비(2인)

Mission Expense: $111.71 활동비

Events: $2,197.80 <함께걸음콘서트 $2,179.22: 미팅 및 활동비 $105.03 / wireless MICs $201.60 / 디너 $514.88 / 디자인 $300 / Sensory Toys $148.11 / 미디어 $400 / 프로그램북 $509.60> <MOIM 집회 홍보활동 $18.58>

Class AGAPE: $478.70 통신비 $61.60 / 줌사용료 $83.42(5월) / 줌사용료 미지급금(2025년 5-8월분) $333.68

Admin & Management: $100.58 통신비 $67.20 / 커넥션코드 $22.38 / 은행 fee $11

Taxes: $532.51

Auto Expenses: $934.13 운행비 $300.88 / 밴보험(6회차) $203.71/ 밴패이먼트 $429.54

Designated Expense: $500.00 코람데오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2,452.57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6,422.17

| 텍사스

■ **INCOME: $13,158.94**

INDIVIDUALS: $935.00 $20 진현주 / $25 방진원 / $50 김태남&이선화, 김희경 / $80 정호영 / $180 채경수&임현정 / $530 박진영

CHURCHES & BUSINESSES: $1,653.94 $3.94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포트워스제일장로교회 / $100 라이프교회, 나눔교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빛과소금의교회, 제자침례교회, JDX Mission / $300 주님의교회, IN2 Dallas Church

DESIGNATED DONAATION: $10,570.00 <사랑의교실: $30 NORRIYA LLC. / $200 김병윤, 무명 / $560 FENY / $600 김계수&이인화 / $4,220 The One Hero Project> <아카데미&오케스트라: $50 Byung C.&SUN N.Cho / $80 총강사진촬영비 / $100 구본진, Kevin Lee, 안은정, 송미령 / $200 밀알캠프참가비, 그림구입(손유진), 장애인체육회, Andrew Kang, 참빛교회 이인성 가족, 세계로제자교회 신현우 목사 / $300 손유진 / $330 헌금 / $500 DK Foundation / $1,500 서부 사랑의캠프 비행기삯> <직업재활: $400 세미한 Beanyard coffee>

FOOD SUPPORT: Escape Bakery, 사랑의교실 봉사자 학부모님들, 조이풀교회, IN2 Dallas Church

■ **EXPENSE: $12,023.42**

MISSION EXPENSE: $4,804.20 Payroll $1,385.2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405 / 지단상회비 $107.37 / 은급비 $288.02 / 간사사례 $300 / 단장활동비 $18.56 / 미주장애인체전 후원 $200 / 멕시코밀알 지원 $400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5,506.06 지휘자 및 연주자 사례(7인) $1,400 / 장소사용 감사헌금 $200 / 연주자 식사 $438.58 / 오케스트라교사 식사 $312.18 / 사랑의교실교실 봉사자 식사 $212.55 / 사랑의교실 물품 $19.51 / 연주회 간식비 $200 / KTN광고료 $200 / 서부밀알캠프 등록비(4인) $800 / 서부밀알캠프 비행기표 $1,723.24

ADMIN & MANEGEMENT: $1,713.16 장소사용료 $200 / 사무용품 $48.52 / 카드 등 재정관련 수수료 $69.02 / 통신비 $100 / IRA tax $229.50 / NTTA toll $240 / Gas $490.98 / Insurance $100 / Utility $235.14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7,592.48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8,728.00

밀알선교단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장애인 발굴, 장애인 방문 예배, 장애인 성경공부, 단원 정기모임, 병원전도,
사랑의캠프, 장애아동 사랑의 교실, 밀알지부 개척, 선교사 파송 및 지원

서로 어려움을 **나눕니다.**

시각장애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녹음, 복지홈 운영, 수어통역, Ride 봉사

신앙공동체에 참사랑을 **심습니다.**

교회 및 단체 방문 찬양과 설교, 수어교육, 밀알의밤, 장애인의 날 행사, 매월 <밀알&세계>발간, 장애인 선교방송

후원방법: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가까운 밀알선교단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밀알단원 신청서

성명: 한글 _____ 영문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이메일: _____

단원종류: 기도단원( ) 실행단원( ) 후원단원( ) 월 $5( ) $10( ) $20( ) $30( ) $50( ) $100( ) 그외 $( )

서명: _____ 날짜: _____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Fax: 562-229-0006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월례기도모임	매월 마지막 화 오후 7 :30	Zoom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랜스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토랜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통합반	매주 토 오후 2:30 ~ 오후 6:30	남가주밀알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a.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벤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목요 밀알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달라스우리교회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밀알청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톤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